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구 물론하고 그에게 육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찢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세 놓고 욱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욱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욱보다 읍의 배참봉 맥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욱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뻘뻘. 작인이 닭 마리카 줌 보내지 않는다는가 애벌는 때 품을 줌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갈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욱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신굶신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줌 하나기 늦잠 잔다고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꿈, 꿈,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들 품 들일

㉢[눈]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갈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된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를 칠 때 들어 쟁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이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낮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중략)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르면 어느 때 같으면 어개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쪼어 줄다.”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 히들 크건만 이젠 위아래가 몽푹한 것이 내 눈에는 험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쟈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바솔이나 흑흑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앓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나기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꼭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나기,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김유정, 『봄·봄』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 ②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 ④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 ⑤ ㉤: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 온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봄·봄』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인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대부분의 마름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 ② ㉡: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 ③ ㉢: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군.
- ④ ㉣: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울화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트리고 있군.
- ⑤ ㉤: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55~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갖지 남 ㉔올타리 엮는데 ㉕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뉘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지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격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올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계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켜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감이 핵 끼치는 붉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뽕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 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㉖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아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얹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험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뉘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배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 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답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래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도 우리 씨암닭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때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작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올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뽕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적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때리는 것이다.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㉗올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올타리를 치면 칠수록 올셋이 물러앉으며 때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 김유정, <동백꽃>

55. ㉠, ㉡의 '올타리'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은 화자와 점순네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한다.
- ② ㉠은 화자의 생활 공간이 고립되어 있음을 말한다.
- ③ ㉠과 ㉡의 역할과 의미는 동일하다.
- ④ ㉠과 ㉡는 동일한 감정을 매개하고 있다.
- ⑤ ㉡는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심리적 금기वाद 같다.

56. ㉢ '쌍이질을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토라지는 것
- ② 이죽거리는 것
- ③ 역성을 드는 것
- ④ 귀찮게 구는 것
- ⑤ 거들먹거리는 것

57. '나(화자)'가 점순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내가 무관심한 척하니깐 곰같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
- ②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니깐 벽창호라고 생각하겠지.
- ③ 내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깐 목석 같다고 생각하겠지.
- ④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니깐 너구리처럼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겠지.
- ⑤ 내가 자꾸 거절하니깐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고 생각하겠지.

58.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순'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백설이 흩날려도 아니 오시네
- ② 아주까리 동백아 피지를 마라
산골의 큰애기 봄바람 난다
-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 ④ 산천의 초목은 달이 달달 번해도
우리들 먹은 마음 번치를 말자
- ⑤ 춘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느냐
사세가 부득하여 지는 꽃이로구나

59. (나)의 []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 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60. 윗글을 바탕으로 '나(화자)'가 50년 후에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이가 봉당에 걸터앉아 우리 집 씨앗밭을 쥐어박던 일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곤 한다.
- ②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새빨개진 얼굴로 눈독을 달려가던 점순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 ③ 소작인의 아들로써 감정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힘든 때였으나 되돌아보면 그래도 순박했던 시절로 기억되곤 한다.
- ④ 요즘 젊은이들의 대담한 감정 표현을 볼 때 점순이가 그 때 좀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숙맥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생각이 든다.
- ⑤ 마름집의 인품을 늘 칭찬하셨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지금도 아련하게 머릿속을 맴돌곤 한다.

◆ 14 수능 예비시행 A형 37~39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서 나온 것이 아홉 시쯤, 그래서 김 반장도 가갯방에 놓은 **흑백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텔레비전을 해올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 내는 김 반장의 등허리를 흘깃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냉큼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 둔 채였다. 우리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의 서울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홉 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 버린 채였다. 형제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쩌끔 새어 나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 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A]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 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은 꿈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 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 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덩치 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뒷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중략)

가게 앞에 서서, 썩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옷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저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째 찍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변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위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겟방을 향해 뛰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겋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37.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②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 ③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 ④ 제삼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는 판단을 제시한다.
- ⑤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8. ‘김 반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다.
- ②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립적 인물이다.
- ③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 ④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이해타산적 인물이다.
- ⑤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수용하는 개방적 인물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귀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간다.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상흔을 어루만진다. 이러한 경향은 『원미동 시인』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실과의 불화로 소외된 ‘몽달 씨’가 비정한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 ① ‘흑백텔레비전’ 등의 소재는 시대에 뒤쳐진 도시 변두리의 현실을 시사한다.
- ② 공단 주변의 황량한 공간 구도는 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간 구도를 형상한다.
- ③ 한산한 동네 풍광은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정경을 드러낸다.
- ④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에 상응하는 설정이다.
- ⑤ 인물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장면에 해당한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민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행복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 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계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괴괴기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뻘뻘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 떨쩍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행복할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 이제 다 나왔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캔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 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단전만 피우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 ㉡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 ㉢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 ㉣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2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와 ㉣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 ㉢은 ㉣을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 ㉣은 ㉤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 ㉤은 ㉥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30.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께께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② ㉡: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05 MDEET 언어추론 12~15번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유부남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둘은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만날 생각으로 집에 들렀다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가) 당신, 저를,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 모두 당신에게 오리무중일 것만 같으니. 점촌 아주머니를 혼자 살게 한 점촌 아저씨의 그 여자, 그 중년 여인으로 하여금 울면서 에어로빅을 하게 만든 그 여자…… 언젠가,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죠…… 거기로 들어와 한때를 살다 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당신.

노여워만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남겨 놓은 이미지는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제가 더 자라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은 개인 신상 카드를 나눠 주며 기록을 해 오라 했습니다. 그 개인 신상 카드 어느 면에 장래 희망을 적어 넣는 칸이 있었지요. 장래 희망. ㉠저는 그 칸 앞에서 오빠 볼펜을 손에 쥐고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심어 놓고 간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추려서 뭐라고 써야 하나? 이것이 고민스러워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던 것입니다. 끝끝내 그 걸 간추릴 단어를 저는 그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어느 때는 은행원, 어느 때는 학교 선생님, 어느 때는 발레리나라고 써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되는 그때그때의 희망들은 모두 그 여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 그…… 여자, 그 여자는 왜……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당신을 믿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께 한 말 중에 지금껏 기억에 남는 말은 유일하게 이 한 마디입니다. 그 여자의 당신이었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갔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어머니께서 잠시 다녀간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대거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오셔서 그 여자가 업고 있던 막내 동생을 받아 안았을 뿐입니다. 지치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머니께서 견디는 방법이셨는가?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젖을 먹이셨어요. 어머니 젖은 통통 불어서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한참을 빨고 나니까 그 힘줄이 가셨습니다. 봄별이 내리쬐는 그 봄날에 마루에 앉아 젖 먹이는 어머니와 그 곁에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라니. 어머니는 젖을 빨다 잠이 든 어린애를 포대기에 싸서 마루에 눕혀 놓고, 토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제게로 오셨어요. 그때, 제 손에 그 여자가 만들어 준 설기떡이 쥐어져 있었던가 말았던가. 그 풍경을 생각하니 눈물이 번지는군요. 어머니께서는

한 칸씩 위로 채워진 제 옷단추를 다시 끌어서 제대로 채워 주시고, 벗어 놓은 제 신발에 담긴 흙 부스러기를 털어 내 주시고서는 물끄러미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시 가셨어요. 삼십 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뒤란 마당까지 깨끗이 쓸고 난 다음이었어요. 실에 펜 감꽃을 주렁주렁 목에 매달고 있는 제 손을 그 여자는 잡아당겼어요.

점심상은 방에 차려 뒀어. 동생은 방금 잠들었구. 깨어나면 기저귀 속에 손 넣어 봐서 오줌 싸거든 얼른 갈아 줘…… 그러구 아버지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어느새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바뀌 입고 있더군요. 분을 열게 바르고 있어서 얼굴빛이 더욱 빨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은은한 향내가 그 여자에게서 다시 났어요. (중략)

그때 제 눈에 띈 게 칫솔통이었습니다. 그 속엔 그 여자의 노란 칫솔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키를 세워 그 칫솔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큰길과 소롯한 수리조합 독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수리조합 길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정신 없이 뛰어 그 여자 뒤에 섰어요. 제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음직도 한데 그 여자는 그저 여민 치마 한 끝을 싸쥐고 뒷모습만 보이더군요. 그 여자 뒤에 바짝 서서 그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는 돌아다봤습니다. 아, 그때 그 여자의 얼룩진 얼굴이라니. 눈물에 분이 밀려나서 그 여자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칫솔을 내밀자 그 여자는 웃을라 말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있는 칫솔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손을 그대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어요.

나…… 나처럼은…… 되지 마.

(다) 사랑하는 당신!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저를,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다니요? 싫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그 여자가 떠난던 날, 그 여자에게 칫솔을 건네주던 때, 그때 저는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인가를 했다고,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생각을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 낼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때 떠나 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그 여자가 떠나 주지 않았어도 과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만한 평온을 얻어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무데나 마구 토해서 부축할 수도 없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환했던 때는 그 여자가 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그것만이 우리 삶의 다라고 여길 수 없는 불편한 부분이 이 마을에는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저는 그 불편함에 의해 끔찍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것밖에 달리 제 마음을 어떻게 쓴단 말인가요. 양젖물을 들이마신 것같이 쓰라리게 당신이 그리워요.

-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상황과 과거 회상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편지투를 활용하여 인물의 고민스러운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말줄임표와 쉼표는 인물의 심적 갈등을 드러내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 변화에 '이 마을'과 '그 도시'의 공간적 대립이 작용하고 있다.

13.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린 '나'는 '그 여자'에게 매혹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 ② '당신'은 과거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무뎠던 성격이어서 '아버지'의 외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④ '그 여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별다른 회한이 없었다.
- ⑤ '나'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진실로 사랑했다고 믿고 있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됨
- ② ㉡ :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견뎌 내겠다는 다짐
- ③ ㉢ : '그 여자'에게 아내의 지위 대신 어머니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
- ④ ㉣ : '당신'과의 사랑을 반성하는 데 따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
- ⑤ ㉤ : 상처가 있다 해도 소중히 가꾸어 온 가족 간의 평온한 관계

15. 위 글의 '나'가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위 글의 주제 의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당신도 소중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겠지요.
- ② 당신의 섬세하고도 여성다운 마음씨는 제가 가장 닮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은 이루기 어려워졌지만, 당신이 준 소중한 꿈은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 ③ 당신과 옛날에 한 약속을 힘들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아픔을 주고 제 마음도 이토록 아픈 것을 생각하면,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 ④ 당신이 떠났던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도덕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팠던 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⑤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견디기 힘든 마음의 짐으로 내내 남았을 거예요.

◆ 22 LEET 언어이해 7~9번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뜻한다. 독자에게 특정한 배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펼쳐지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주체’를 우리는 화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독자는 항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허구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가령 등장인물의 대화가 직접화법으로 표현된 장면을 떠올려보자. 드라마가 화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로 진행된다면 점에서 이 장면도 드라마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간접화법 대신 직접화법을 채택한 것이어서 독자에게 대화를 직접 듣는다는 착각을 이끌어내려는 책략이라고 보아야 한다. 독자는 화자가 자신의 말로 바꾸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 상관없이 언제나 그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다.

화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브룩스와 위렌은 순전히 화자가 보는 위치를 기준으로 일인칭과 삼인칭을 구분한 뒤, 목격자로서 사건을 관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탐구자로서 사건을 분석하는지에 따라 일인칭 주인공 시점과 일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분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의는 삼인칭 시점에서 ‘화자’의 시점을 ‘작가’의 시점으로 치환하였고, 특정 인물의 내면을 그려내는 것과 모든 인물의 내면을 그려내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뭉뚱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는 주체’로서의 화자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 랜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화자의 역할을 이야기의 내용이나 주제와 결합시켰다. 기존 논의가 ‘시점’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건을 보는 위치에 치중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건을 보는 입장도 고려하고자 했다. 화자가 다른 공간적 위치에 서거나 다른 이념적 입장을 가질 때,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인식되어 다르게 재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랜서는 화자를 작가가 창조한 세계를 보여주는 인식틀이라고 언급했다. 독자가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항상 화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자가 작품에 개입하는 것과 독자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둘러싼 ㉢ 플라톤의 고전적인 문제제기는 흥미롭다. 그는 모방을 논하면서 영혼의 진정성 문제를 연결시킨다.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독자들이 실재와 가상을 착각하게 만들수록 진정성을 의심한 반면, 주관적인 논평을 섞는 방식으로 화자를 떠올리게 할수록 좀 더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소설에 비추어 보면 화자를 이야기에 개입하여 객관성을 훼손하는 존재로 바라보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소설은 화자 때문에 객관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화자 덕분에 다른 양식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소설의 화자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수많은 소설작품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개별 작품의 경우에도 하나의 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작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손꼽는 작품들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화자의 위치나 입장, 역할 등을 이론적으로 따지기보다 구체적인 작품 감상과 결부시키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작가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것을 등장인물,

화자, 독자가 정보량을 둘러싸고 벌이는 일종의 게임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변주될 수 있다. 가령 화자가 등장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르는 등장인물을 지켜보며 독자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등장인물과 독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독자는 인물과 같은 수준으로 작중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퍼즐을 풀어나가는 기분으로 사건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독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경우, 독자는 결말에 이르러서야 사건의 진모를 파악하면서 반전의 효과를 체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울리는 화자를 창조하는 일은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걸음이다.

7.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독자가 소설을 감상하고자 할 때, 독자와 접촉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는 화자이다.
- ㉡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예술적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 ㉢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대화를 직접화법으로 묘사할 때에는 화자의 목소리가 개입하지 않는다.
- ㉣ 드라마에서는 통상 등장인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하는 주체’의 목소리도 관객에게 직접 들린다.
- ㉤ 이야기되는 사건이 같다면 작가가 화자의 위치나 입장, 독자와의 관계를 변화시켜도 다른 소설로 만들기 어렵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현실에 존재하는 작가와 작가가 창조한 화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 ㉡ ㉡은 화자에 대해 이야기를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틀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 ㉢ ㉢은 독자들이 실재와 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 ㉣ ㉣과 ㉤은 ‘말하는 주체’에 선행하는 ‘보는 주체’로서의 화자의 역할을 소설의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 ㉤ ㉣과 ㉤은 화자를 통해서 작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내에 나갔다 왔다. 그사이 누군가가 집에 다녀간 흔적이 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분명히 집을 뒤졌다. 몇몇 물건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도둑일까? 집에 도둑이 든 일은 지금껏 없었다.

저녁에 퇴근한 은희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다. 은희는 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뭐가 없어졌느냐고 묻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뭐가 없어졌다.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 말할 수가 없다.

“치매에 걸리면 다들 그런대요. 머느리도 도둑이라고 하고 간호사도 도둑이라고 하고”

그래, 그걸 도둑망상이라고들 하지. 나도 그걸 알아. 그런데 이걸 망상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없어졌다고. 일지와 녹음기는 몸에 지니고 있으니 무사했지만 다른 무언가가 사라졌다.

“그래, 개가 없어졌다. 개가 없어졌어.”

“아빠, 우리 집에 개가 어디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

- ① 화자가 주인공과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주인공의 내면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② 화자가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허구세계에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건의 전모를 모른 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겠군.
- ③ 주인공과 화자와 독자의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에 대한 화자의 정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
- ④ 주인공인 화자가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인공을 안타깝게 느낄 수 있겠군.
- ⑤ 모든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가 화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른 등장인물의 진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있겠군.